

# 羅末麗初 閻崛山門과 政治勢力의 動向

金 興 三\*

## 목 차

- I. 序 論
- II. 通曉大師와 政治勢力
  - 1. 通曉大師와 閻崛山門의 成立
  - 2. 通曉大師와 政治勢力
- III. 朗圓大師와 政治勢力
  - 1. 朗圓大師와 閻崛山門의 發展
  - 2. 朗圓大師와 政治勢力
- IV. 結 論

## I. 序 論

新羅末期에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자 지방의 支配者로 등장한 호족세력들은 대체로 산문을 지원, 독자적인 山門을 개창시켜 자신들의 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초점을 두어 지금까지 山門과 政治勢力의 관계에 대해 많은 研究가 있었다. 이들 연구는 특정한 地域을 중심으로 하여 각 山門과 그와 관련된 정치세력을 究明하는 구체적인 작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sup>1)</sup> 山門 중의 하나였던 閻崛山門에<sup>2)</sup> 관한 연구는 처음에 선종이나 정치세력

\* 江原大 史學科 講師

- 1) 金啓杓, 1993. 「新羅下代 迦智山門」 『全南史學』 (全南大 史學會) 7.  
金杜珍, 1988. 「羅末麗初 桐裏山門의 成立과 그 思想」 『東方學志』 (延世大 國學研究院) 57.  
金煥泰, 1979. 「曠陽山派의 成立과 그 法系에 대하여」 『韓國佛敎學』 (韓國佛敎學會) 4.  
朴貞柱, 1992. 「新羅末·高麗初 獅子山門과 政治勢力」 (碩士學位論文, 翰林大 大學院).  
曹凡煥, 1994. 「新羅末 鳳林山門과 新羅王室」 『震檀學報』 (震檀學會) 78.  
崔柄憲, 1978. 「新羅末 金海地方의 豪族勢力과 禪宗」 『韓國史論』 (서울대 國史학과) 4.
- 2) 閻崛山門을 현재 李基白(1990. 「豪族의 時代」 『韓國史新論』 (서울:一潮閣) 151) 등 사학계와 韓基斗(1991. 「新羅時代의 禪思想」 『韓國禪思想研究』 (서울:一志社) 119·121) 등 불교학계에서 사굴산문으로 읽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자사전에서 '關'가 화장할 사, 망루 도로 되어 있는 까닭에 불교적인 의미를 가진 '사'로 읽은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서 도굴산문이라고 읽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古來로 대관령은 워낙 험한 탓에 선질꾼들이 정상에서 강릉까지 대굴대굴 굴러 내려온다 해서 대굴령으로 불리고 있다(張正龍, 1996. 『대관령문화사』 (강릉:동해안발전연구회) 1). 이때 대굴대굴은 도굴도굴, 두굴두굴, 또굴또굴과 같이 굴러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도굴도굴(도굴도굴) 구르다에서 '굴'을 한자로 표기할 때 '굴'로 기록하여 도굴산이 되었던 것 같다. 그런데 通曉大師에 이르러 도굴산(도굴산)을 발음상 유사한 閻崛山으로 표기한 것으로 이는 불교적으로 운색된 것이다. 閻崛山은 靈鷲山의 梵語인 Grdhrakūṭa(耆闍崛多)를 번역하여 鷲頭·鷲峯·鷲靈·鷲臺·靈山이라고도 하

과 관련시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다가,<sup>3)</sup> 구체적인 연구는 198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간의 연구성과 중 闍崛山門에 대한 구체적인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먼저 申千滉은 답사결과 확인한 遺址와 수집유품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문헌적 자료와 결부시켜 屈山寺의 역사성과 범일의 事蹟을 파악하였다.<sup>4)</sup> 張文哲는 羅末麗初 영동지방의 선종보급 과정을 闍崛山派와 강릉호족과의 관계를 통해 考究하였다.<sup>5)</sup> 白弘基는 靑山사 유적의 위치 및 現狀, 창건시대와 위치, 崛山寺와 地藏禪院과의 관계, 廢寺時期, 遺構·遺物에 관하여 살폈다.<sup>6)</sup> 方東仁은 靑山사의 창건연대와 梵日의 出自 등에 관한 연구와 그 전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sup>7)</sup> 金杜珍은 靑山문 내의 움직임과 그것이 포용하는 사상적 특징 및 靑山문도들과 이들 檀越勢力의 얽힘을 추구하여, 그들이 分化 내지 분립되어 나가는 과정을 밝혔다.<sup>8)</sup> 金甲童은 羅末麗初 溟州地域의 地方勢力과 崛山門 및 고려정부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sup>9)</sup>

위와 같은 연구성과로 梵日의 가계와 闍崛山派의 개창, 崛山寺의 창건시기와 존폐시기, 범일의 弟子인 開淸과 行寂의 출자와 그들의 活動, 崛山派와 溟州豪族과의 관계 등이 대체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중 崔柄憲의 견해를 살펴보면, “溟州는 金周元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

---

며 통효대사의 闍崛山도 거기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라 한다(韓國佛敎大辭典編纂委員會, 1982. 『韓國佛敎大辭典』(서울:寶蓮閣) 4, 648). 그런데 근래에 들어 ‘闍崛’이라는 말이 ‘盜掘’과 같은 발음이라서 어감상 좋지 않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굴산문은 원음이 ‘그르드호라꾸따’이어서 ‘闍’는 ‘드호라’이므로, 원음에 가까운 ‘도’로 발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3) 羅末麗初 崛山門을 禪宗이나 政治勢力과 관련시켜 단편적으로 다룬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金映遂, 1938. 「曹溪禪宗에 就하여」, 『震檀學報』(震檀學會) 9.  
 金貞淑, 1984. 「金周元 世系の 成立과 그 變遷」, 『白山學報』(白山學會) 28.  
 申虎澈, 1982. 「弓裔의 政治의 性格-특히 佛敎와의 關係를 中心으로-」, 『韓國學報』(서울:一志社) 29.  
 李在範, 1992. 「後三國時代 弓裔政權의 研究」(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 大學院).  
 鄭淸柱, 1996. 「弓裔와 豪族勢力」,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서울:一潮閣).  
 趙仁成, 1991. 「泰封의 弓裔政權 研究」(博士學位論文, 西江大 大學院).  
 崔圭成, 1992. 「弓裔政權下의 知識人의 動向」, 『國史館論叢』(國史編纂委員會) 31.  
 崔柄憲, 1972. 「新羅下代 禪宗九山派의 成立」, 『韓國史研究』(韓國史研究會) 7; 歷史學會 編, 1976. 『韓國史論文選集(古代篇)』 II (서울:一潮閣).  
 ———, 1975. 「羅末麗初 禪宗의 社會의 性格」, 『史學研究』(韓國史學會) 25; 佛敎史學會 編, 1986a. 『韓國佛敎禪門의 形成史研究』(서울:民族社).
- 4) 申千滉, 1980. 「韓國佛敎史上에서 본 梵日의 位置와 屈山寺의 歷史性 檢討」, 『嶺東文化』(關東大 附設嶺東文化研究所) 1.
- 5) 張文哲, 1983. 「嶺東地方 禪宗普及에 관한 研究-闍崛山派를 中心으로-」(碩士學位論文, 慶熙大 大學院).
- 6) 白弘基, 1984. 「溟州 崛山寺址 發掘調査 略報告」, 『考古美術』(韓國美術史學會) 161.
- 7) 方東仁, 1984. 「崛山寺에 대한 研究와 展望」, 『古文化』(韓國大學博物館協會) 24.
- 8) 金杜珍, 1986a. 「新羅下代 崛山門의 形成과 그 思想」, 『省谷論叢』(省谷學術文化財團) 17.
- 9) 金甲童, 1990. 「溟州勢力」, 『羅末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 研究』(서울:高大民族文化研究所).

자 隱居한 곳으로, 그후에 그 계통의 사람들은 이곳에 계속하여 世居하였다. 따라서 闍岨山派의 開祖 梵日도 그의 祖父가 溟州都督을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계통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범일이 闍岨山派를 개창케 한 것도 당시의 명주도독인 金公이었고 또한 第2祖인 開淸도 같은 계통이었으며, 그의 檀越도 명주의 關滄 閔規와 知溟州軍州事 大匡 王荀息(順式)이었다. 闍岨山派의 개창도 溟州의 이러한 金周元 계통의 기반 위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sup>10)</sup> 이러한 견해는 申千湜·張文哲·方東仁·金杜珍 등에 의해 지지되었고 현재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이들의 견해는 金周元系를 정점으로 하여 岨山門과 政治勢力이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일원론적이고 단일적인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는 무수한 사회관계, 다양한 조직집단과 비조직집단, 수많은 단일유대 및 복합유대의 집단들을 포괄하는 가장 일반적인 차원의 사회구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 특징은 그 속에서 사람들의 일상적인 경제적·정치적·종교적·교육적 활동의 대부분이 벌어진다는 점이다.<sup>11)</sup> 특히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란 다양한 계급·계층의 이해가 서로 충돌·교차하는 일종의 투쟁의 결절점이다.<sup>12)</sup> 따라서 당시 명주지역 사회를 豪族勢力인 江陵金氏만이 주도했던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글은 비록 현재와 다른 古代·中世的인 형태의 政治體制를 이룩하였더라도 그들은 다양한 집단을 이룩하여 각기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信仰을 믿고 여러가지의 방법으로 정치와 연계를 맺으며 歷史를 살아 갔던 것으로 전제하고, 梵日·開淸과 그 政治勢力에 대해 구명하고자 한다.<sup>13)</sup>

10) 崔柄憲, 1976. 「앞글」 (주 3) 309.

11) 吳甲煥, 1974. 「社會·文化·變動」 『社會의 構造와 變動』 (서울:博英社) 30.

12) 김태일, 1990. 「국가의 지배와 농민」 『지역사회 지배구조와 농민』 (서울:연구사) 34.

13) 開淸 외에 梵日의 首弟子로 朗空大師(行寂)가 있다. 그러나 그는 梵日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굴산문이 있었던 溟州地域에서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崔仁洵 撰, 1919. 「奉化 太子寺 朗空大師 白月栖雲塔碑」 『朝鮮金石總覽』 (서울:朝鮮總督府) 上; 1976. (서울:亞細亞文化社) 181-188). 이 글은 주로 명주를 중심으로 岨山門과 政治勢力에 대해 고찰하므로 行寂과 政治勢力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 崔仁洵(신라 귀국 후)과 崔彦擥(고려)는 동일인이지만(李賢淑, 1995. 「나말여초 崔彦擥의 정치적 활동과 위상」 『梨花史學研究』 (梨花史學研究所) 22, 8), 「朗空大師碑」는 崔仁洵 撰으로, 「朗圓大師碑」는 崔彦擥 撰으로 표기함.

## II. 通曉大師와 政治勢力

### 1. 通曉大師와 閩嶺山門의 成立

通曉大師에 대한 기록은 『海東七代錄』에 수록되었다고 하나 현재 전해지지 않으며, 天頤의 『禪門寶藏錄』 중 「禪教對辨門」과 西山大師의 『禪教釋』에 어록이 적은 양으로 게재되어 있고, 『三國遺事』 卷3 塔像4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條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현재 남아있는 기록 중 범일에 대해 가장 자세한 것은 『祖堂集』 卷17 「溟州嶺山故通曉大師」條이다.<sup>14)</sup> 이 책은 범일이 입적(889)한지 63년 뒤인 952년에 편찬되어 다른 어떤 사료보다도 시기가 근접하므로 신빙성이 높다. 또한 이 책의 내용은 범일의 塔碑文을 요약한 것으로 사료로서도 가치가 큰 것이다.<sup>15)</sup> 그래서 이 『祖堂集』을 중심으로 하여 범일의 出自와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溟州 嶺(嶺)山の 通曉大師는 馬祖道一의 제자인 塩(鹽)官을 이었고 法諱는 梵日이며, 鳩林的 冠族 金氏였다.<sup>16)</sup> 조부의 諱는 述元이며, 벼슬이 溟州都督에까지 이르렀는데, 청렴·공평하게 시속을 살피고, 너그로우면서 엄격하게 사람을 대하니 맑은 풍조가 아직도 民謠에 남아 있고, 그밖의 것은 傳記에 갖추어져 전해지고 있다. 그의 어머니 문씨는 여러 대를 내려오는 豪族家門 출신으로서 세상에서 부녀의 모범이라 불렸다.<sup>17)</sup>

범일이 鳩林的 冠族金氏인 점으로 보아 王族金氏임을 알 수 있고 그의 조부가 명주도독을 역임한 점으로 미루어 그가 眞骨出身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범일의 조부는 명주도독을 끝으로 관직을 그만두고 강릉에 계속 거주하게 된 것 같다. 그래서 부친은 어떤 벼슬도 못하여 그에 대한 기록이 없는 듯 하다. 이것은 부친대에 범일의 가계가 이미 지방세력으로 토착화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모친이 태기가 있을 무렵에 해를 받아들이는 꿈을 꾸고 태속에 있기를 열석달만인

14) 金知見 編, 1987. 『祖堂集 并 論集』, 卷17, 「溟州嶺山故通曉大師」條 (서울:大韓傳統佛敎研究院) 211.

15) 崔柄憲, 1986b. 「地方豪族과 禪宗」 『史料로 본 韓國文化史(古代篇)』 (서울:一志社) 354.

16) 崔柄憲은 '鳩林'이 현재의 全南 靈巖郡 郡西面 鳩林里에 해당된다고 하였다(1975. 「道詵의 生涯와 羅末麗初의 風水地理說」 『韓國史研究』 (韓國史研究會) 11, 109 주 15). 또 金甲童은 鳩林을 鷄林的 오기로 보았다(1990. 「앞글」 (주 9) 79).

그러나 始林·鷄林에서 시는 元來「새·서·시」 등의 諸音으로 互轉되어 始林은 곧 「시불」(始 음차, 林 훈차 불)이며 계림 역시 「鷄」의 古訓이 「뚝」외에 통칭 「새」였으므로 「새불」의 차자이다(梁柱東, 1965. 「處容歌」 『增訂 古歌研究』 (서울:一潮閣) 386). 鳩 또한 통칭 새이므로 계림과 같은 의미가 된다. 또 『三國遺事』, 卷1, 紀異1, 「金闕智 脫解王代」條에 「見大光明於始林中(一作 鳩林)」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시림과 계림·구림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위의 「鳩林」이란 지명은 「鷄林」 즉 慶州를 말하는 것이다.

17) 『祖堂集』, 1987. 「위글」. 「溟州嶺山故通曉大師 嗣塩官 法諱梵日 鳩林冠族金氏 祖諱述元 官至溟州都督 廉平察俗 寬猛臨人 淸風尙在於民謠 餘列備於傳乎 其母文氏 累葉豪門 世稱婦範」

元和 5년 庚寅(憲德王 2년, 810) 정월 10일에 그가 탄생하니 螺髻 모양의 머리와 頂珠에 구슬이 있어 특이한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

梵日は 15세되던 해인 宣德王 16년(824)에 출가하기를 결심하고 부모에게 허락을 구하니, 兩親은 전생에 좋은 인연을 심은 결과라고 생각하여 승락하였다. 이에 머리를 깎고 입산하여 도를 닦다가 20세(興德王 4년, 829) 때 京師(慶州)에 이르러 具足戒를 받았다. 淸淨行을 두루 닦되 부지런하고도 부지런히 정진하니 수행자의 龜鑑이 되고 法友의 模範이 되었다. 이로보아 그는 경주의 불사에 머물 당시에 승려로서 상당한 명성과 촉망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8)</sup>

太和年間(興德王 2년~10년, 827~835)에 이르러 중국에 들어가 구법하려고 혼자 뜻을 세우고, 드디어 王子 金義琮을 만나 품은 뜻을 털어 놓으니 훌륭한 포부에 감탄하고는 동행을 허락하여, 太和 9년(興德王 11, 836)에 배를 빌려타고 唐나라에 도착하였다.<sup>19)</sup> 이 入唐傳心의 사상을 찾기 위해 범일은 평소 자기가 연구하던 경전인 『華嚴經』과 『楞伽經』 등을 버리고 입당한 것이다.<sup>20)</sup> 곧 杭州에 이르러 明州 開國寺에 일시 머물다가<sup>21)</sup> 巡禮의 길에 올라 善知識을 두루 찾았다. 마침내 馬祖의 法嗣 鹽官 濟安大師를 뵈고 그의 문하에 들어갔다.

범일이 ‘어떻게 해야 成佛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니 대사가 ‘도는 닦을 필요가 없으니, 그저 더럽히지 말라. 부처다. 보살이다 하는 견해를 짓지 말라. 평상의 마음이 곧 도이니라’고 답하였다.<sup>22)</sup> 佛性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닦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부처니 보살이니 하는 外緣으로 인해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불이니 보살이니 하는 기존관념으로는 佛蹟에 사로잡혀 큰 도를 닦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즉 누구든지 묵은 생각과 낡은 知見을 버리고 새로운 사고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또 불타나 보살의 언행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이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이는 불성을 내심에서 구하려 했기 때문이다. 선종에서는 ‘直旨人心 見性成佛’하는 길이 오직 심성을 도야하는 참선에 있으며, 각자 자신의 깨침(覺)으로 해탈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sup>23)</sup> 그러므로 선을 통하

18) 金杜珍, 1986a. 「앞글」 (주 8) 320.

19) ‘太和年間 云云’한 것은 입조사에게 동행할 것을 허락받은 시기이고, 金義琮이 開成 원년 정월에 입당하였으므로 신라를 떠난 시기는 太和 9년 겨울쯤이었을 것인데, 여기서 김의종의 존재는 무시될 수 없으니, 범일의 입당시기는 836년이다(權惠永, 1994. 「唐 武宗의 廢佛과 新羅求法僧의 動向」 『정신문화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권 54, 103. 주 58).

20) 韓基斗, 1991. 「新羅時代의 禪思想」 『韓國禪思想研究』 (서울:一志社) 172-173.

梵日は 華嚴學으로 출발하였고 義湘의 영향 아래에 있던 지방세력을 開山하여 그 지역의 화엄세력을 흡수하였다 한다(許興植, 1986. 「僧科制度和 그 機能」 『高麗佛敎史研究』 (서울:一潮閣) 358 주 7). 그리고 개정은 출가하여 華嚴山寺에서 雜花(華嚴經)를 배웠고(본 논문 ‘朗圓大師와 峴山門의 發展’ 참조), 행적은 伽耶山 海印寺에서 雜華의 妙義를 배웠으며 당에 가서도 한때 花嚴寺에 머물고 있었다(崔仁浣 撰, 1976. 「앞비」 (주 13) 182-183). 이와 같이 신라말 閻廬山門의 선승들은 모두 經論을 주로하는 敎宗에서 출발하여 후에 禪宗으로 改宗하였다.

21) 『三國遺事』, 卷3, 塔像4, 「洛山二大聖 觀音·正趣·調信」條.

22) 『祖堂集』, 1987. 「앞 글」 (주 14) 211. 「梵日問曰 如何卽成佛 大師答曰 道不用修 但莫汙染 莫作佛見菩薩見 平常心是道」

여 각자의 마음 속에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불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불보살의 권위를 없애는 움직임은 殺佛殺祖의 殺活自在하는 생생한 祖師의 뜻을 얻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sup>24)</sup>

梵日은 6년(836~842)동안<sup>25)</sup> 제안대사 문하에서 수련하면서 그 法印을 전수받았고 그후 藥山에 이르러 惟儼을 찾아 禪問答을 나누었다. 그 뒤 마음대로 행각을 하다가 멀리 帝里(長安)에 들리니 때마침 會昌 4年(文聖王 6년, 844)에 唐 武宗이 廢佛승을 내려 승려를 핍박하고 불사를 훼손하였다. 이 난을 피해 東奔西走하며刻苦하다가 商山에 숨어 떨어진 과일과 흐르는 물로 연명하며 반년동안 혼자서 禪定을 닦았다. 후에 韶州에 가서 惠能 祖師塔을 예배하려는 뜻을 세우고, 曹溪에 이르렀다.

이때 梵日은 고향으로 돌아가 佛法을 펼 생각을 하고는 드디어 會昌 6年 丁卯<sup>26)</sup> 8월에 鷄林으로 돌아와 玄菟(新羅)의 城에 빛나고 靑丘의 地境을 비추었다.<sup>27)</sup> 이것은 범일이 귀국 후 경주를 중심으로 불법을 넓게 선양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sup>28)</sup> 梵日은 大中 5年(文聖王 13년, 851) 정월에 白達山에서 宴坐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명주도독인 金公이 嶺(嶺)山寺에 주석하기를 청하니, 그곳에 간 후 入寂할 때까지 40여년동안 傳法하였다.

어떤 사람이 ‘무엇이 祖師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 범일이 답하기를 ‘六代에도 잃은 적이 없느니라’ 하였다. 또 ‘어떤 것이 승려가 힘써야 할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 범일이 ‘부처의 階級(境地)을 밟지 말아라. 남을 따라 깨달으려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sup>29)</sup> 승려가 할 일은 보시와 번뇌, 불과 중생의 階級에 끌려 外境에 사로 잡히지 말고 他悟 즉 佛祖 등 他界에서 얻은 悟得境을 좇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만 自性の 계발로 자신의 주체성을 살려 眞人이 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sup>30)</sup>

이후 그는 大中 12년(憲安王 2년, 858) 明州 開國寺에서 만난 新羅 沙彌僧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溟州 翼嶺縣(襄陽)에 이르러 正趣菩薩像을 얻은 후 洛山寺에 殿 3間을 만들어 모시었다.<sup>31)</sup> 범일이 정취보살을 내세우고 있음으로 보아 義湘系 華嚴思想에 상당한 관심을

23) 崔柄憲, 1986a. 「앞글」 (주 3) 213.

24) 韓基斗, 1991. 「앞글」 (주 20) 113.

25) 權惠永, 1994. 「앞글」 (주 19) 103.

26) 회창 6년은 丙寅年이고 정묘년은 회창 7년(大中 1년, 文聖王 9년, 847)에 해당한다. 그런데 연대에 있어서는 숫자보다도 干支가 더 신빙성이 높다(李基白, 1986. 「新羅初期佛敎와 貴族勢力」 『新羅思想史研究』 (서울: 潮閣) 76). 또 『三國遺事』에 범일의 귀국이 회창 7년 정묘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범일이 신라에 돌아온 해는 회창 7년 정묘년에 해당된다.

27) 『祖堂集』, 1987. 「앞글」 (주 14) 211. “返于鷄林 亭亭戒月 光流玄菟之城 皎皎意珠 照徹靑丘之境”

28) 金杜珍, 1986a. 「앞글」 (주 8) 320.

29) 『祖堂集』, 1987. 「위글」. “有問 如何是祖師意旨 答曰 六代不曾失 又問 如何是納僧所務 答曰 莫踏佛階級 切忌隨他悟”

30) 韓基斗, 1991. 「위글」 (주 20).

31) 주 21과 같음.

가졌음을 알 수 있다.<sup>32)</sup>

범일이 굴산문에 머무른 이후 咸通 12년(景文王 11년, 871) 3월에 景文大王이, 廣明 元年(憲康王 6년, 880)에 憲康王이, 光啓 3년(定康王 2년;眞聖王 1년, 887)에 定康大王이 그의 선종을 흠모하여 國師로 봉하기 위해 中使를 보내어 서울로 모시려 하였다.<sup>33)</sup>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굳게 뜻을 지키고 끝내 왕실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眞聖女王 때에 왕이 梵日國師에게 禪教兩義에 대하여 물으니 “저의 스승인 석가가 태어나서 法을 說하고 사방 일곱 걸음을 한 후 唯我獨尊을 말하였습니다. 이후 속세를 떠나 雪山에 있으면서 道를 깨달았으나, 이 法이 지극한 경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여러 달 돌아다니다가 이윽고 祖師를 방문하니 眞歸大師가 비로소 傳하여 玄極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教外別傳입니다”고 하였다.<sup>34)</sup> 범일은 석가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우친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며, 그 뒤 진귀조사를 만나 깨우친 것이 바로 祖師禪이라 하였다. 이것은 범일이 진성여왕에게 教宗의 우월적인 觀念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그것에 대한 禪宗의 우위를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禪과 教를 비교하여 선을 優越하게 보려는 禪宗思想 경향은 선사들이 왕실보다 地方豪族 쪽으로 기울어지는 분위기와 연관되어 있다.<sup>35)</sup>

文德 2년(眞聖王 3년, 889) 4월 말에 범일은 門徒를 불러 “내가 장차 他界에 돌아가니 이제 곧 영원히 이별이다. 너희들은 世情에 이끌려 슬퍼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 마음을 닦아 宗旨를 失墜시키지 말라”고<sup>36)</sup> 당부하고 굴산사 上房에서 5월 1일 입적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 80세이며 僧臘 60세가 되었다. 그의 諡號는 通曉大師이며 塔名은 延徽이다. 그의 탑이 현재 전해져 오지 않으나 입적 후 開淸이 중심이 되어 문하제자들과 함께 탑비를 건립하였을 것이다.<sup>37)</sup> 그의 문하에는 開淸·行寂·信義<sup>38)</sup> 등이 있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通曉大師의 年表를 작성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32) 金杜珍, 1986a. 「앞글」, (주 8) 327-328.

33) 中使는 中事省(中使省)의 관리로 국왕의 직속 秘書·侍從機構였는데(李基東, 1984. 「羅末麗初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서울:一潮閣) 233-240), 신라하대에 이르러 국왕은 이 중사성을 통하여 측근의 官僚集團을 형성하고 執事省의 실권도 점차 여기에 흡수해 갔다(李基東, 1984. 「위글」 242).

34) 天頤, 『禪門寶藏錄』, 卷上, 「禪教對辨門」條. “溟州岷山 梵日國師 答羅代眞聖大王 宣問禪教兩義云 我本師釋迦 出胎說法 各行七步云 唯我獨尊 後踰城往雪山中 因星悟道既知是法未臻極 遊行數十月 尋訪祖師 眞歸大師 始傳得玄極之旨 是乃教外別傳也”

35) 金杜珍, 1973. 「朗慧와 그의 禪思想」, 『歷史學報』 (歷史學會) 57; 佛敎史學會 編, 1986b. 『韓國佛敎禪門의 形成史研究』 (서울:民族社) 269.

36) 『祖堂集』, 1987. 「앞글」, (주 14) 211. “吾將他往 今須永訣 汝等莫以世情淺意亂動悲傷 但自修心 不墜宗旨也”

37) 崔彦搆 撰, 1919. 「江陵 地藏禪院 朗圓大師悟眞塔碑」, 『朝鮮金石總覽』 (서울:朝鮮總督府) 上:1976. (서울:亞細亞文化社) 142. “文德二年夏 大師歸寂 和尚黑巾 倍增絕學之悲 恒切忘師之恨 所以敬修寶塔 遽立豐碑 兼以常守松門”

38) 信義에 관하여는 『三國遺事』, 卷3, 塔像4, 「臺山月精寺五類聖衆」條 참고.

<표 1> 通曉大師 年表

西紀	王曆	나이	行跡
810	憲德王 2	1	정월 10일 溟州에서 출생
824	憲德王 16	15	출가
829	興德王 4	20	京師(경주)에 가서 구족계 받음
827~835	興德王 2 ~興德王 10	18~26	왕자 金義琮에게 입당구법할 생각을 말하고 허락받음
836	興德王 11	27	金義琮을 따라 입당 유학, 명주 개국사에 머물다* 巡遊함
836~842	興德王 11 ~文聖王 4	27~33	馬祖의 法師인 鹽官齊安을 6년간 모심
843	文聖王 5	34	藥山惟儼을 찾아 禪問答을 나눔
844	文聖王 6	35	唐 武宗의 廢佛令으로 商山에 은거하여 禪定을 닦음
?	?	?	韶州로 갔다가 귀국결심
847	文聖王 9	38	8월에 당에서 경주로 돌아옴
851	文聖王 13	42	溟州都督 金公의 청으로 嶺山寺에 가서 입적할 때까지 40여년 머무름
858	憲安王 2	49	洛山寺 중창*
871	景文王 11	62	景文王이 국사에 책봉하려고 불렀으나 사양함
880	憲康王 6	71	憲康王이 국사에 책봉하려고 불렀으나 사양함
887	定康王 2	78	定康王이 국사에 책봉하려고 불렀으나 사양함
887~889	眞聖王 1~3	78~80	眞聖女王에게 眞歸祖師說을 논함**
889	眞聖王 3	80	5월 1일 입적(속년 80, 승랍 60), 碑建立

\* 『祖堂集』, 卷17, 「溟州山窟山故通曉大師」條를 참고하여 표를 작성함.

\*는 『三國遺事』, 卷3, 塔像4, 「洛山二大聖 觀音·正趣·調信」條.

\*\*는 天頤의 『禪門寶藏錄』의 「禪教對辨門」條.

마지막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굴산사의 창건년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三國遺事』에는 ‘會昌 七年 丁卯에 還國하여 먼저 嶺山寺를 搆建하고 敎를 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sup>39)</sup> 즉 굴산사는 회창 7년(文聖王 13년, 851)에 설립된 것을 알 수 있다.<sup>40)</sup> 그런데 『祖堂集』에는 ‘溟州都督인 金公이 嶺山寺에 住持하기를 청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文聖王 13년 이전에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둔 견해는 그 근거로 ‘請住嶺山寺’라는 표현으로 보아 굴산사가 이미 개창된 것이고 『祖堂集』의 기록이 『三國遺事』의 기록보다 정확하며 지표조사과정에서 標集한 유물 중에서 신라의 중대의 것이 다수 발견이 되고 있다

39) 주 21과 같음. “以會昌七年丁卯還國 先搆嶺山寺而傳敎”

40) 이 해에 굴산사가 창건된 연대로 본 견해로는 方東仁, 1984. 「앞글」 (주 7) 28-30과 白弘基, 1984. 「앞글」 (주 6) 2가 있다.



는 사실을 들고 있다.<sup>41)</sup>

그런데 『臨瀛誌』의 기록에서 ‘良家の 처녀가 峯山에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石泉의 물을 길러 갔다’고 하였다.<sup>42)</sup> 석천은 현재 굴사사지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바, 민간인이 절안에 물을 길러 갈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때까지 석천에는 절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峯山寺가 없었거나 규모가 庵子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三國遺事』의 ‘棚’의 개념을 ‘開棚’이 아니라 ‘重棚’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것은 『祖堂集』의 ‘請住 峯山寺’를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굴산사가 개창되기 이전에 이미 峯山에 조그마한 절이 있었고, 범일이 이곳에 住持하면서부터 산문으로 성장하게 되었을 것이다.<sup>43)</sup>

## 2. 通曉大師와 政治勢力

梵日이 政治勢力과 관계를 맺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현재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여기서서는 다만 기존의 연구에서 주장하여 온 金周元系와의 관계를 비판하고, 『祖堂集』에 나타난 金公 및 新羅 國王의 관계를 고찰할 것이다.

먼저 梵日과 政治勢力의 관계를 살피기 전에 梵日家와 金周元系의 관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金周元과 梵日의 조부인 金述元의 관계에 대해 많은 究明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대부분 연구에서 金述元을 김주원계통의 인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첫째, 조부의 이름이 金述元인 관계로 金周元과 혈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며,<sup>44)</sup> 둘째로 김술원과 김주원이 다 같이 ‘元’이라는 同一班列을 취하였고,<sup>45)</sup> 또한 김주원과 김술원이 비슷한 시기의 인물이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sup>46)</sup>

그러나 그가 金周元系라면 반란의 소지가 있는 지역에 그 지역의 출신을 파견한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곤란하기 때문에 溟州都督으로 파견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sup>47)</sup> 周

41) 申千湜, 1980. 「앞글」 (주 4) 9-10.

42) 臨瀛誌 增補發刊委員會, 1975. 「寺刹 및 石塔」 『臨瀛誌』 (江陵:文旺出版社) 259.

43) 金杜珍, 1986a. 「앞글」 (주 8) 301.

44) 崔柄憲, 1976. 「앞글」 (주 3) 309.

45) 申千湜, 1980. 「앞글」 (주 4) 10-11.

班列이란 품계나 신분등급의 차례를 말하는 것이다(한글학회 편, 1992. 『우리말 큰사전』 (서울:어문각) 첫째권, 1621). 그러므로 여기에서 ‘班列’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에 반해 ‘行列’은 친족집단 내에서의 계보상의 종적인 세대관계인데, 종적인 세대에서 형제관계에 있을 때에 같은 항렬이라는 의미에서 ‘同行’이라 하고, 친족집단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름 자를 ‘行列字’라고 한다(崔弘基, 1991. 「行列」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24, 444-445).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同行’이라는 표현이 타당할 것이다.

46) 金杜珍, 1986a. 「위글」 319.

47) 金甲童, 1990. 「앞글」 (주 9) 78.

知하다시피 相避制는 일정한 범위내의 친족간에는 同一官司나 또는 統屬關係에 있는 官司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어떤 지방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관리는 그 지방에 파견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골품제하의 신라에서는 재상급에 속하는 최고위 관직에서만 부자간의 상피가 행해졌던 단편적인 사례가 발견된다.<sup>48)</sup> 그러나 비록 宰相級이 아니더라도 상피제가 시행되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것은 아래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주원계가 외직으로 溟州都督에는 임명되지 못한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표 2> 金周元系의 外職 一覽表

인명	관직	취임년도	인명	관직	취임년도	인명	관직
金憲昌	武珍州 都督	憲德王 5년(813)	金陽	固城郡 太守	興德王 3년(828)	金昕	南原 太守 康州 都督
	靑州 都督	憲德王 8년(816)		中原京 大尹			
	熊川州 都督	憲德王 13년(821)		武州 都督			

※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 10, 憲德王條와 『三國史記』, 卷44, 列傳4, 金陽 附 金昕條를 참고하여 표를 작성함.

또한 金周元 世系를<sup>49)</sup> 보더라도 金周元의 아들 이름이 宗基·憲昌·身으로 行列字를 사용하지 않았고, 나말여초 당시 대부분의 이름도 완전히 향렬자를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김주원과 金述元을 같은 계열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음으로 金周元과 金述元이 비슷한 시기의 인물이라는 문제는 김주원과 라이벌의 관계에 있었고 동시기에 살았던 元聖王의 가계와 비교해 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元聖王은 785년에 김주원계와 싸워 이겨 왕위에 오르고 그의 첫째 아들 仁謙을 태자로 삼았으나 죽어 둘째 아들 義英을 태자로 봉하였지만 역시 사망하였다. 그의 손자 俊崐은 799년에 昭聖王이 되었고, 증손자인 淸明(哀莊王)이 13세(800)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sup>50)</sup>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800년에 이미 김주원에게도 10여세 정도되는 증손자가 있었을 것이다.<sup>51)</sup> 이에 반해 金述元의 손자인 梵日은 810년에야 태어났다. 그러므로 김주

48) 韓相俊, 1991. 「相避制」 『韓國民族文化大百科辭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1, 597-598.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興德王 10年條에 “阿浪 金均貞을 임명하여 上大等으로 삼으니 侍中 祐微이 父 均貞이 宰相으로 들어온 까닭에 글을 올려 직을 그만 둘 것을 청하였다. 大阿浪 金明을 시중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보아 재상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상피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9) 金貞淑, 1984. 「앞글」 (주 3) 164.

50)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 10, 元聖王·昭聖王·哀莊王條.

51) 金周元의 증손자인 金陽은 興德王 3년(828)에 固城郡 太守가 되었다(『三國史記』, 卷44, 列傳4, 金陽

원가계와 김술원가계는 한세대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어 김술원과 김주원이 동시기의 인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金杜珍이 계산한대로라면 金周元은 785년에 40살(술원 35세)로 745년생이며 金憲昌은 775년생이고 金梵文은 805년생이 되는데,<sup>52)</sup> 과연 김범문이 20세(825)의 젊은 나이로 高達山賊과 謀叛을 할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다. 만약 30세에 반란을 일으켰다고 계산하더라도 주원과 술원이 15세의 격차가 생겨 주장하는 바의 의미가 크게 떨어진다.

다음으로 범일의 외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씨인 범일의 외가는 강릉지역의 호족으로 범일의 가계가 이 지역의 세력가로 등장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sup>53)</sup>

범일국사의 母 文氏는 김주원계통으로서 族內婚을 행한 후 김씨와는 다른 문씨라고 稱姓하였거나 원래 경주에 있었던 上級親族共同體인 김주원계통과 연결된 下級親族共同體가 강릉지방에 토착하여 따로 대두되면서 문씨라고 칭성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sup>54)</sup> 이에 대해 張文哲은 첫째, 문씨가 累葉豪門이라는 점, 둘째, 『新增東國輿地勝覽』 「江陵都護府 風俗」條에 '同姓不婚'이라고 한 점을 들어 후자가 타당하다고 하였다.<sup>55)</sup>

그러나 『三國史記』 소개 王母·王妃姓을 보면, 이들이 실제 김씨이면서 叔氏·申氏·眞氏 등으로 표현하여 형식상으로는 漢姓을 취한 사례가 있다. 이것은 同姓同本の 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억지로 모계를 부계와 구분할 필요에서 제시된 姓字이다.<sup>56)</sup> 그러므로 범일의 모가 문씨인 것도 동성동본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 문씨라고 칭한 것일 뿐 실제 성은 같은 김씨였다.

또한 『世宗實錄 地理志』 「江陵府 土姓」條를 보면 강릉부의 토성으로 金·崔·朴·郭·咸·王이 있음을 알 수 있다.<sup>57)</sup> 그러나 文氏는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선 초기 이전까지는 문씨가 강릉의 土着勢力으로 거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범일의 母가 명주지방의 累葉豪門인 문씨의 가계였다는 점에서 그를 김주원계로 파악하고 있는데,<sup>58)</sup> 김주원계는 이 당시 겨우 2~3대째 강릉에 거주하였을 뿐이어서 여러 세대(累葉)를 지칭하는 말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문씨는 오히려 『三國遺事』 「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條나 「臺山五萬眞身」條의 世獻角干의 집안일 수 있다. 세헌은 실제 관등이 각

---

附 金昕條). 그러므로 김양과 청명이 비슷한 나이였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52) 金杜珍, 1986a. 「앞글」 (주 8) 319.

53) 金杜珍, 1986a. 「위글」, 319.

54) 崔柄憲, 1986a. 「앞글」 (주 3) 195.

55) 張文哲, 1983. 「앞글」 (주 5) 52.

56) 李丙燾, 1983. 『國譯 三國史記』 (서울:乙酉文化社) 216 ㉗㉘㉙.

李樹健, 1984. 「後三國時代 支配勢力과 土姓」 『韓國中世社會史研究』 (서울:一潮閣) 117-118 · 121.

57) 『世宗實錄』, 卷153, 地理志, 「江陵大都護府 土姓」條.

58) 申千湜, 1980. 「앞글」 (주 4) 10-11.

간이 아니라, 文武王 14년에 出居된 후예로서 우수한 귀족가문의 대표자로 이해되므로,<sup>59)</sup> 이 당시까지 명주지방에 거주하며 지역사회를 지배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 그 가문이 아닐까 한다.

결국 梵日의 가문은 당시 溟州地域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김주원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세력을 창출하여 성장한 것으로 金周元系와 아주 밀착된 관계는 아니고 약간의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한편 梵日과 연관된 정치세력으로는 溟州都督 金公을 들 수 있다.

大中 5年 정월에 白達山에 宴坐했는데 溟州都督인 金公이 嶺山寺에 住持할 것을 청하니, 한 번 林中에 앉은 지 40餘年동안 늘어진 소나무로 道를 행하는 殿廊을 삼고, 平石으로 安禪하는 자리를 만들었다.<sup>60)</sup>

범일이 당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후 文聖王 13년(851)에 백달산에 宴坐하고 있었는데, 당시 명주도독이었던 김공이 범일을 굴산사의 주지로 청하니 이에 응하여 이곳에 머물렀다. 이로 보아 명주도독인 김공이 굴산사의 단월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공은 梵日이 入唐할 때 도와 준 金義琮이며, 그를 김주원의 후손이거나 그 계통의 세력권에 있었던 인물로 파악하고 있다.<sup>61)</sup> 그러나 김공을 梵日의 입당을 주선한 金義琮으로 보기에 다소 의문이 제기된다. 『三國史記』를 보면 金義正(金義琮)은 이미 文聖王 11년(849)에 상대등을 역임하였는데 2년 뒤에 다시 명주도독으로 임명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憲安王이 김공이라면 『祖堂集』에 왕이라고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전체 글의 구조에 있어서 김의종과 김공이라는 말이 너무 떨어져 있어 그를 지시하는 말인지 불명확하다.<sup>62)</sup>

또한 ‘金公’의 ‘公’은 당시에 풍미하던 외자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 외자 이름은 나말여초 김주원가에서도 身·昕·陽·父 등의 예가 있으므로 ‘公’이 충분히 이름일 수 있다. 그리고 ‘公’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존칭어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같은 굴산문의 「地藏禪院 朗圓

59) 金光洙, 1979. 「羅末麗初의 豪族과 官班」, 『韓國史研究』(韓國史研究會) 23, 134. 국가의 徙民에 의해 낙향귀족이 된 것에 대해서는 鄭淸柱, 1996. 「豪族의 擡頭」, 『앞책』(주 3), 14-16 참고.

60) 『祖堂集』, 1987. 「앞글」(주 14) 211. “暨大中五年正月 於白達山宴坐 溟州都督金公 仍請住嶺山寺 一坐林中 四十餘載 列松爲行道之廊 平石作安禪之坐”

61) 金杜珍, 1986a. 「앞글」(주 8) 307-308.

義琮에 대해 李基東은 文聖王 11년에 상대등이 된 義正과 동일인이며, 義正이 諠靖과 同音인 점과 諠靖이 당시 상대등에 보임될 만한 補職에 있었던 점에서 뒤에 憲安王이 되었다고 추정하였다(李基東, 1984. 「新羅下代の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앞책』(주 33) 169-171).

62) 이에 비해 同一人이 撰한 行寂의 비문에는 “遂於咸通十一年 投入備朝使金公緊榮 西□之心 備陳所志 金公情探傾蓋 許以同舟”라 하여 문맥상 김공이 김진영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崔仁洸 撰, 1976. 「앞비」(주 13) 182-183).

大師碑」에 ‘王公荀息」과 「太子寺 朗空大師碑」에 ‘金公緊榮」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로 보아 김공에 대한 원래의 표기는 ‘金公公」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인식함에 있어 오해가 있을까 하여 ‘金公」으로 표기를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김공이 金周元의 후손이거나 그 계통의 세력권에 있었던 인물로 볼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없다. 그런데 김공이 溟州都督으로 파견된 점으로 보아 앞서 설명한 상파제가 실시되었다면 그는 김주원계가 아니었을 것이다.

결국 김공은 중앙에서 相避制에 의해 파견된 관리로 김주원계와는 다른 세력이며, 오히려 김주원계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梵日을 끌어들이어 종교세력을 형성해 政教結合政策을 꾀했던 인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범일과 신라 국왕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咸通 12년(景文王 11년) 3월에 景文大王이, 廣明 元年(憲康王 6년)에 憲康大王이, 光啓 3년(定康王 2년;眞聖王 1년)에 定康大王이 범일의 선종을 흠모하여 國師로 봉하기 위하여 中使를 보내어 서울로 모시려 하였다. 그러나 대사는 오랫동안 굳게 뜻을 지켜 끝내 나가지 않았다.<sup>63)</sup>

범일은 굴산문에 머무른 후 자주 신라왕의 부름을 받았다. 즉 신라의 景文王은 871년에, 憲康王은 880년에, 定康王은 887년에 범일을 國師로 봉하려 하였다. 景文王은 혼란했던 下代의 정치상황을 안정기로 변화시키고 中代에 버금가는 문화의 융성을 꾀한 王이다.<sup>64)</sup> 또한 그는 불교적인 측면에서는 國家再建의 精神的 支柱로서 黃龍寺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sup>65)</sup> 이러한 현상은 다음의 憲康王과 定康王에게로 이어졌다.<sup>66)</sup> 당시 이들 왕들은 黃龍寺에서 百坐講會와 看燈의 불교의식을 행하였는데, 이는 국가의 발전을 비는 중요한 佛教儀式이었다.<sup>67)</sup> 이러한 의식은 新羅下代에 이르러 政治的·社會的으로 혼란이 가중되자 국왕이 국민들의 총화를 모아 國家의 再建을 기하려는 의도에서 시행했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또 傳統的으로 王은 그 權威에 宗教的 後光을 더하려는 정책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는 과거 教宗과의 관계에서 禪宗과의 관계로 전환한 대불교방침의 선상에서 접근하였을 것이다.<sup>68)</sup> 이와같은 불교정책에 의하여 왕들이 梵日에게 집요하게 접근하였을

63) 『祖堂集』, 1987. 「앞글」 (주 14) 211. “咸通十二年三月 景文大王 光明元年 憲康大王 光啓三年 定康大王 三王並皆特迂於禮 遙申欽仰 擬封國師 各差中使 迎赴京師 大師久蒞堅貞 確乎不赴矣”

64) 朴慶植, 1989. 「新羅 景文王代の 石造美術에 關한 研究-基壇部 樣式을 中心으로-」, 『史學志』 (檀國大學會) 22, 123.

65) 朴慶植, 1989. 「위글」 124.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景文王 6·11·13년조.

66)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 11, 憲康王 2·12년조와 定康王 2년조.

67) 李基白, 1986. 「黃龍寺와 그 創建」, 『앞책』 (주 26) 51-57.

68) 이 당시 王과 禪師들의 關係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것이다. 이 외에 黃龍寺에서 百坐講會와 看燈의 행사를 하여 국가재건을 하려고 한 것과 같이 무너져가는 新羅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를 포섭하려고 하였을 것이며, 당시의 禪師들과 마찬가지로 梵日도 최고의 지식인 계층으로 지역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정치를 운영해 나가는 데 그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梵日は 끝내 왕실에 나아가지 않고 峴山門의 宗風을 선양하는 데 노력하였다. 즉 그는 왕실과 거리를 두어 역대왕의 초청을 물리치고 禪을 수련하는 데에만 힘쓴 것이다. 이와같이 梵日이 國王과의 관계가 소원했던 것은 첫째로 禪宗은 禪을 통하여 각자의 마음 속에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佛性を 깨달으려는 個人主義的인 傾向을 띠고 있었는데, 梵日이 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둘째로 新羅下代에 이르러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여 지방에 대한 王室의 統治力이 강력히 미치지 못하였는데, 특히 그가 거주하고 있던 溟州地方은 新羅의 邊境地方이어서 더욱이 왕실의 統治力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셋째로 敎學에서 믿어지던 佛陀의 權威를 禪宗에서 부정하는 것은 불타를 理念表象으로 생각하던 王者階級の 권위를 부정하는 것으로,<sup>69)</sup> 범일이 濟安大師에게 불타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을 배운 점으로 미루어 보면 또한 그가 王者의 권위를 부정하여 그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넷째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梵日이 '眞歸祖師說'에서 敎宗에 대한 禪宗의 우위를 주장한 것으로 보아 그는 왕실보다는 地方豪族 쪽으로 기울어졌을 것이다.

요컨대 梵日의 가문은 金周元系를 토대로 하여 성립된 것이 아니며, 범일의 檀越이었던 金公은 相避制에 의해 파견된 관리로 金周元系와는 다른 세력이었고, 梵日은 禪宗의 경향과 地理的인 영향으로 신라왕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표 3> 景文王·憲康王·定康王과 禪師들의 관계

왕 명 산문/관계법명	경 문 왕	현 강 왕	정 강 왕
鳳林山 玄昱	대면, 高達寺 移住 命		
聖住山 無染	대면 뒤 도망하자 深妙寺 移居 命(871)	대면(876)	초청거부
獅子山 道允	대면(추정)		
閼嶺山 梵日	초청거부(871)	초청거부(880)	초청거부(887)
聖住山 大通	月光寺 住持 命(867년 무렵)		
實相山 秀澈	대면	대면(875년 무렵)	
曦陽山 道憲	초청거부(861년 무렵)	대면(882)	
桐裏山 道說		대면	
鳳林山 利觀		대면(875~879년 사이)	

\* 추만호, 1992. 「선종의 사회적 기반과 성격」 『나말여초 선종사상사 연구』 (서울:이론과 실천) 154-155 <표 5>를 참고하여 작성함.

69) 金杜珍, 1986b. 「앞글」 (주 35) 279.

### Ⅲ. 朗圓大師와 政治勢力

#### 1. 朗圓大師와 闍崛山門의 發展

朗圓大師 開淸에 관한 기록은 현재 史書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다만 崔彦擣가 撰한 「江陵 地藏禪院 朗圓大師 悟眞塔碑」에 남아 있다. 그래서 이 비를 중심으로 朗圓大師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朗圓大師의 法諱는 開淸이고 俗姓은 김씨로 辰韓의 鷄林人이다. 그의 선조는 東溟의 冠族(훌륭한 가문)出身이며 本國의 宗枝(王族)였다. 개청의 할아버지는 守眞<sup>70)</sup>인데 蘭省의 郎과 栢臺의 吏를 지냈고, 父親은 有車로 康郡(康州, 현 晉州)에서 벼슬을 지냈는데 일찍이 어지러운 세상을 피하고자 궁벽한 시골로 隱居하여 결국 높은 벼슬을 하려는 생각을 버렸다. 모친은 復寶氏이었다.<sup>71)</sup>

위의 내용으로 보아 개청의 가문은 본래는 新羅 宗姓 김씨였으나 祖父代에는 중앙관직의 말직을 담당하였고 父代에 와서는 外官으로 康郡에 거주하다가 정착한 가문임을 알 수가 있다. 결국 그의 조부나 부친은 中央의 下級官吏나 郡縣의 官職을 맡으면서 마침내 중앙의 벼슬에 뜻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開淸의 가계는 地方勢力家가 되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神僧으로부터 金印을 받는 꿈을 꾸 후 임신하여 정성껏 仁祠(寺刹)를 만들고, 경건히 佛事를 닦았다. 大和 9년(興德王 10년, 835) 4월 15일에 개청을 낳았는데,<sup>72)</sup> 얼굴이 마치 滿月과 같이 단정하고 입술은 紅蓮과 같았다.

朗圓大師는 8살 때 학당에 가서 공부를 시작하였고, 10세에 경서를 펴 들고 본받는 데 힘썼다. 入仕할 나이(12세)에 벌써 유학경전을 탐구하여 13세에는 재주와 학문이 孔門에서 으뜸으로 추앙을 받았다. 이 때 부모에게 入山修道를 허락받고, 출가하여 華嚴山寺로<sup>73)</sup> 가 正行法師에게 도를 물었다. 이곳에서 개청은 雜華를 배워 화엄사상을 익히는 데 뜻을 두었고,

70) 李基東은 '守眞'을 『三國史記』, 卷46, 列傳6, 強首傳 末尾에 인용된 「新羅古記」에 전하는 守眞일 것으로 보았다(李基東, 1984. 「羅末麗初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 『앞책』 (주 33) 256).

71) 崔彦擣 撰, 1976. 「앞비」 (주 37) 141. “大師諱開淸 俗姓金氏 辰韓鷄林人也 其先東溟冠族 本國宗枝 祖守眞 蘭省爲郎 栢臺作吏 考有車宦遊康郡 早諧避地之心 流寓喙鄉 終擲朝天之志 母復寶氏”

開淸의 母親 姓이 復寶氏인 것은 앞의 범일의 모가 문씨였던 점과 같이 동성동본의 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72) 「앞비」 141에서 개청의 탄생년대를 大和 8년(文聖王 16년, 854)으로 기록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개청은 구족계를 대종말년에 받는데, 그의 나이가 고작 6세에 해당되므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그의 示滅이 同光 8년(930, 長興 1년)인 것을 기준으로 출생년대를 계산하면 835년이 된다.

73) 華嚴山寺는 구례의 華嚴寺라고 하나(李智冠, 1994. 「江陵 地藏禪院 朗圓大師 悟眞塔碑文」, 『韓國佛教 金石文校勘譯註』 (서울·伽山文庫) 卷二, 144 주 56), 구례의 화엄사에 官壇이 있는데 굳이 엄천사에 가서 수계하는 것으로 보아 이 절이 아닌 듯 하다(韓基汶, 1988. 「新羅末 高麗初의 戒壇寺院과 그 機能」 『歷史教育論集』 (歷史教育學會) 12, 48).

경전을 연구함에 鷲嶺의 宗을 두루 탐구하였다.<sup>74)</sup> 이것은 敎宗에 속하는 모든 종파의 교리를 살살이 탐구한 것을 의미한다.<sup>75)</sup> 大中 末年(憲安王 3년, 859)에 康州(晉州)의 嚴川寺<sup>76)</sup> 官壇에서 具足戒를 받고 다시 本寺로 돌아와 여러 경전을 探究하였다. 그 후 蓬島(南海)의 錦山에 들어가 참선하던 중, 우연히 藏經을 열람하다가 金剛三昧를 성취하려고, 먼저 正覺의 마음을 닦았다.<sup>77)</sup> 이때 개청은 敎宗의 논리를 떠나 禪理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金剛三昧를 얻으려 하면서 먼저 正覺하는 마음을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sup>78)</sup>

이어 3년동안 솔잎만 먹으면서 菩提의 果를 증득하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갑자기 노인이 나타나 禪客으로 변하면서 朗圓大師에게 “崛嶺에는 범일이 있는데, 그는 때를 탄 대사이며 세상에 나온 神人으로 楞伽寶月의 마음을 깨달았고, 印度諸天의 性を 아는 사람”이라 하고 그를 찾으라 하니 五臺山에 이르러 崛山寺의 通曉大師를 뵈었다.<sup>79)</sup> 이때 낭원은 능가사상에 의거하여 선을 고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楞伽經은 達摩 以後의 선종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禪經으로 신라 여명기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신라 여러 산문이 개창되기 전에 능가경을 배우다가 入唐傳心했던 北山系 無染과 범일 및 南岳系의 兢讓·利嚴·麗嚴·朗圓·法鏡 등에게서도 능가경에 의거한 선을 고취하였음을 찾을 수 있다.<sup>80)</sup>

이 때 大師는 “어찌 이리 늦었는가? 너를 기다린 지 오래다”라고 하면서 入室을 허락하고, 그에게 心印을 전해 주었다.<sup>81)</sup> 이 후 開淸은 崛山門의 주요한 일들을 처리하였는데, 文德 2년(眞聖王 3년, 889)에 通曉大師가 入寂하니, 和尚은 검은 색 頭巾을 쓰고 학문이 끊어지는 것을 슬퍼하는 등 스승을 잃어버린 아쉬움이 간절하였다. 그러므로 정성을 다하여 寶塔을 쌓고, 큰 비석을 서둘러 세워 松門(崛山門)을 지키려 하였다.<sup>82)</sup>

이때 草寇들이 횡행하였는데, 溟州의 慕法弟子인 闕飡 閱規가 開淸을 흠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고, 道를 사모하는 뜻 또한 돈독하여 굴산문을 후원하면서 자주 찾아와 法門을 들었

74) 崔彦擣 撰, 1976. 「앞비」 (주 37) 141. “尋師於華嚴山寺 問道於正行法寺 法寺知此歸心 許令駐足 其於師事 備盡素誠 志翫雜華 求栖祇樹 高山仰止 備探鷲嶺之宗”

75) 李智冠, 1994. 「앞책」 (주 73) 144.

76) 慶尙南道 咸陽郡 嚴川 북쪽 언덕에 소재하였다(『新增東國輿地勝覽』, 卷31, 「咸陽郡 佛宇」條).

77) 「위비」 141-142. “此時遠聞蓬島中有錦山 乘盃而欸涉鬣波 飛錫而尋投鹿苑 栖禪之際 偶覽藏經 披玉軸一音 得金剛三昧 十旬絕粒 先修正覺之心”

梵日の 제자 朗圓이 藏經 가운데 金剛三昧의 도리를 찾고 그 법을 아는 자는 누구보다도 崛嶺의 범일이라 하고 그의 제자가 된 점으로 미루어 崛山門은 金剛三昧經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韓基斗, 1991. 「앞글」 (주 20) 51).

78) 金杜珍, 1986a. 「앞글」 (주 8) 321.

79) 「위비」 142. “忽有老人 瞻仰之中 驪爲禪客 粲然發玉 皓亦垂霜 謂大師曰 師宜亟傍窮途 先尋崛嶺 彼有乘時大士 出世神人 悟楞伽寶月之心 知印度諸天之性 大師不遠千里 行至五臺 謁通曉大師”

80) 韓基斗, 1991. 「앞글」 (주 20) 40-41.

81) 「위비」 142. “大師曰 來何暮矣 待汝多時 因見趨庭 便令入室 心深求法 禮事師甚 一栖道樹之旁 幾改莫之序 所以始傳心印”

82) 주 37과 같음.



다. 마침내 그는 普賢山寺를 회사하여 住持하도록 청하니, 대사는 그곳으로 나아갔다. 이로보아 地藏禪院은 개청에 의해 개창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보현산사로 불리워졌던 절로,<sup>83)</sup> 아마 개청이 주지하면서 굴산문의 중요한 선문도량이 되었을 것이다. 이 절은 현재 강릉시(구 명주군) 城山面 普光里에 있다. 또한 當州(溟州)軍州事를 맡은 大匡 王荀息(金順式)은 講院(普賢山寺)에 나아가서 奇妙함을 탐구하고 神異함을 앙모하면서 崛山門의 宗旨를 떨쳤다.

景哀大王이 대사의 덕이 천하에 으뜸이고 명망이 海東에 두텁다는 소문을 듣고 中使인 崔暎을 보내어 국사의 예를 표하였다. 마침내 開淸은 同光 8년(高麗 太祖 13年, 930) 9월 24일에 普賢山寺 法堂에서 入寂하니 그의 나이 96세이며, 僧臘 72세였다. 그의 사후 10년 뒤인 太祖 23年(940)에 왕건은 개청에게 諡號를 내려 朗圓大師라 하고 塔名을 悟眞의 탑이라 하였다. 그의 門下에는 上足弟子로 神鏡·聰靜·越晶·奂言·惠如·明然·弘(弘)琳禪師 등 많은 門徒들이 있었고, 음기에 적힌 純父·釋超·靈寂·弘信 등도 개청의 제자였을 것이다.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朗圓大師의 년표를 작성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朗圓大師 年表

西紀	王 曆	나 이	行 跡
835	興德王 10	1	4월 15일 康郡에서 출생
842	文聖王 4	8	就學
844	文聖王 6	10	경서를 보면서 본받는데 힘씀
846	文聖王 8	12	유교경전 힘써 공부
847	文聖王 9	13	재주가 孔門에서 으뜸
?	?	?	華嚴山寺에 출가하여 正行法師에게 사사
859	憲安王 3	25	康州 嚴川寺 官壇에서 구족계를 받음. 다시 華嚴山寺로 돌아옴
?	?	?	崛山寺에 가서 通曉大師 梵日로부터 心印을 받고 모심
889	眞聖王 3	55	범일입적
?	?	?	草寇의 습격을 받음
?	?	?	溟州 慕法弟子 閔規 闕滄이 普賢山寺를 회사하여 주지로 거함
?	?	?	知溟州軍州事 王荀息과 만남
924 ~927	景哀王 1~4 太 祖 7~10	90~93	景哀大王이 崔暎을 보내어 國師의 예를 포함
930	太祖 13	96	9월 24일 보현산사 법당에서 입적. 속년 96, 승랍 72.
940	太祖 23		朗圓大師라는 諡號가 내려지고 碑가 세워짐

※ 崔彦擥 撰, 1919. 「江陵 地藏禪院 朗圓大師悟眞塔碑」, 『朝鮮金石總覽』(서울:朝鮮總督府) 上:1976. (서울:亞細亞文化社)를 참고하여 표를 작성함.

83) 또 다른 기록인 朝鮮總督府, 1911(明治 44年). 「溟州府普賢寺事蹟」, 『朝鮮寺刹史料』 下:1986. (서울:高麗書林) 60. “寺號普賢 以其菩薩劫建 而仍號焉 其後 新羅景哀大王國師朗圓大師重修”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五臺山과 峴嶺의 관계이다. 위의 비에 “... (노인이) 그대(開淸)가 가기 힘든 길을 빨리 가려면 먼저 峴嶺을 찾아가야 한다. ... 대사는 천리가 멀다 않고 가서 五臺에 이르러 통효대사를 뵈었다”고 한다.<sup>84)</sup> 노인이 개청에게 굴령을 찾으라 하였는데 하필 五臺에 이르러 범일을 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이능화는 蓋梵語에 耨闍峴은 譯云 ‘象頭’의 의미인데 강릉 오대산의 북대를 象王山이라 칭하는 고로 此를 闍峴山이라 칭함이라고 하였다.<sup>85)</sup> 白弘基는 지금의 오대산과 굴산사지는 지리상·지형상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86)</sup> 그리고 韓基斗는 범일은 굴산사가 개산지이나 후기에는 오대산에서 주거했다고 하였다.<sup>87)</sup>

다음의 기록들은 五臺山과 峴嶺의 관계를 시사해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 ① 신라의 淨神太子 寶叱徒는 아우 孝明太子와 함께 河西府의 世獻角干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묵고 이튿날 大嶺을 넘어 각각 1천명을 거느리고 省烏坪에 가서 여러 날을 놀다가 太和 元年 8월 5일에 형제가 함께 五臺山으로 들어가 숨었다.<sup>88)</sup>
- ② 釋息影菴記에 산(頭陀山)은 고을 서북쪽 30리에 있다. 웅장하게 먼데까지 걸쳐있어서 큰 바다에 임하고 氣勢가 臺嶺山과 함께 連綿한다.<sup>89)</sup>
- ③ 大關嶺은 江陵府 서쪽 40리에 있으며 부를 아늑하게 감싸고 있는 산이다. ... 또 동쪽으로 꺾여서 五臺山이 되었으며 오대산 남쪽 산록이 비스듬히 누워 大關嶺이 되었다.<sup>90)</sup>
- ④ 발굴시 ‘屈山寺’와 ‘五臺山’이라는 印刻銘文瓦가 함께 출토되었다.<sup>91)</sup>

위의 사료 ①을 보면 寶叱徒의 일행이 大嶺(대관령, 대굴령, 굴령)을 넘어 省烏坪을 거쳐 五臺山으로 들어 간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대령을 넘어 오대산으로 간 것인데, 이는 서로 지리적으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료 ②는 頭陀山이 臺嶺山과 連綿해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대굴산이란 아마도 대관령과 오대산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굴령과 오대산을 동일한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사료 ③에서 大關嶺은 五臺山의 남쪽 산록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오대산과 대관령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산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④는 발굴할 때에 ‘屈山寺’와 ‘五臺山’이라는 銘文瓦가 함께 출토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그 내용이 앞의 자료와 같이 굴산사가 오대산과 관

84) 주 79와 같음.

85) 李能和, 1929. 「朝鮮佛教史」 『朝鮮史講座』 (서울:朝鮮史學會) 128.

86) 白弘基, 1984. 「앞글」 (주 6) 2.

87) 韓基斗, 1991. 「高麗 禪宗의 思想的 系譜」 『앞책』 (주 20) 248.

88) 『三國遺事』, 卷3, 塔像4, 『溟州 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條. “新羅淨神太子寶叱徒 與弟孝明太子 到河西府世獻角干家一宿 翌日躡大嶺 各領一千人到省烏坪 累日遊翫 太和元年八月五日 兄弟同隱入五臺山”

89)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4, 「三陟都護府 佛宇」條. “釋息影菴記 山在郡西北三十里 雄跨遐裔控 臨大海 氣勢與臺嶺綿亘”

90) 瀧澤誠, 1933. 『增修 臨瀛誌』, 「關陘」條 (江陵:江陵古蹟保存會) 21. “大關嶺 在府西四十里即府之鎮山 … 又東折爲五臺山 五臺之南麓 逶迤爲大關嶺”

91) 白弘基, 1984. 「앞글」 (주 6) 2.

련이 있었다는 내용이 아닐까 한다. 결국 위 비의 내용도 崛嶺과 五臺山이 동일한 지역이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로 보아 崛山寺가 있는 崛嶺은 五臺山과 역사적·지리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평창군 珍富面에 있는 지금의 오대산은 굴산사지와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하루에 걸어서 갈 수 있는 一日文化圈 안에 있어 동일한 지역으로 파악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崛山(崛嶺)을 五臺山과 연결시켰던 것은 오대산이 옛날부터 佛敎의 聖地로 중요시 여겨져 崛嶺이 五臺山 안에 포함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개청은 범일의 뒤를 이어 굴산문의 제2조가 되었는데 草寇들에게 침입을 당하니 閔規가 도와 地藏禪院의 주지로 모셨고, 이후 金順式의 협조로 崛山門을 발전시켜 나가게 된 것이다. 또한 그의 門下에는 上足弟子로 神鏡·聰靜·弘琳禪師 등 많은 門徒들과 그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제자들이 있어 그들에 의해 法脈이 이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崛山門의 법이 전파되어 발전을 하게 되었다.

## 2. 朗圓大師와 政治勢力

開淸이 政治勢力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였는가를 살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료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현존하는 「地藏禪院 朗圓大師碑」에 의거하여 開淸과 關滄 閔規 및 王順式의 관계를 살피고, 아울러 新羅 王과 弓裔 및 王建과의 관계도 살필 것이다.

먼저 비문을 살펴보면 개청은 東溟의 冠族出身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東溟을 江陵 내지 이를 포함한 영동지역으로 보아 개청 역시 범일과 마찬가지로 김주원계에 속했다는 견해가 있다.<sup>92)</sup> 그러나 東溟은 海東 즉 新羅를 가리키고,<sup>93)</sup>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그의 조부가 慶州에서 관직생활을 하다가 부친대에 이르러 康郡으로 이주해 온 왕족김씨였으므로 그는 김주원계가 아니다.

개청과 관계를 맺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政治勢力으로 먼저 關滄 閔規를 들 수가 있다.

- ① 文德 2년 여름에 通曉大師가 入寂하니, 和尚은 검은 색 頭巾을 썼는데 학문이 끊어지는 것을 매우 슬퍼하였고, 항상 스승을 잃어버린 아쉬움이 간절하였다. 그러므로 정성을 다하여 寶塔을 쌓고, 큰 비석을 서둘러 세워 松門을 지키려 하였다.<sup>94)</sup>
- ② 여러차례 草寇를 만났는데 洞口를 차단하여 크게 힐책하였다. 더욱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깊어져 汀邊을 굳게 지켰으니 선에 머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도왔다.<sup>95)</sup>
- ③ 이때 當州의 慕法弟子인 閔規 關滄은 禪風을 부러워하는 뜻이 간절하고 도를 사모하는 정

92) 金杜珍, 1986a. 「앞글」 (주 8) 320-321.

93) 李智冠, 1994. 『앞책』 (주 73) 141.

94) 주 37과 같음.

95) 崔彥擡 撰, 1976. 「앞비」 (주 37) 142. “幾遭草寇 詰遮洞裏 惟深護法之懷 堅操汀邊 志助栖禪之懇”

이 깊어, 그는 일찍부터 禪扉를 후원하면서 자주 찾아가 친견하고 법문을 들었으므로 이에 普賢山寺를 喜捨하여 住持하도록 청하니, 대사가 檀那의 마련에 심히 감동하여 인연이 있으니 머물겠다고 대답하였다.<sup>96)</sup>

위 비문 ①은 眞聖王 3年(889)년에 범일이 입적한 후 개청이 굴산문의 계승자가 된 것을 보여준다. 개청이 입적할 때까지 굴산사에서 범일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개청은 마땅히 검은 頭巾을 쓰고 그의 입적을 주관하였고, 이후 굴산사를 지키면서 그의 비를 건립하였다. 그러나 ②와 같이 여러차례에 걸친 ‘草寇’들의 침입을 받아 ‘松門’ 곧 굴산사를 지키기 어려웠다. 이 당시(899) 여러 지역에서 草賊의 무리들이 들끓고 있었는데, 명주일대에도 ‘草寇’들이 창궐하였을 뿐만 아니라 嶺山門의 중심 사찰이었던 嶺山寺에 심대한 위협을 줄 정도로 그들의 위세가 대단하였다. 이 때문에 개청이 굴산사와 인접해 있던 보현산사로 서둘러 옮겨간 것이다.

개청이 보현산사로 옮긴 보다 더 큰 이유는 ③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때 當州 즉 溟州의 법을 흠모하는 제자인 閔規 關滄이 普賢山寺를 喜捨한데서 찾을 수 있다. 민규 알찬은 일찍부터 개청을 후원하면서 자주 찾아가 친견하고 법문을 들으면서 地藏禪院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해보아 그는 개청의 檀越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초구들의 침입이 있자 보현산사를 희사한 것이다.

이러한 閔規에 대해 關滄이란 그의 官等이나 또 姓氏로 보아 金周一派의 上級親族共同體와 연결되어 있었던 地方의 下級親族共同體 出身으로 보았다.<sup>97)</sup> 新羅骨品制 하에서 6두품이 오를 수 있는 관등은 제17관등 가운데 6관등인 關滄(阿滄)인데, 관직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現職에 있지 않고 경주를 떠나 강릉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그가 경주에서 6두품출신으로 벼슬을 하다가 더 이상 陞職할 수 없어서 강릉으로 이주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청과 관련있는 또 다른 정치세력으로 王順式을 들 수 있다.

- ① 溟州將軍 順式이 아들을 보내 降附하였다.<sup>98)</sup>
- ② 명주장군 순식이 아들 長命을 보내어 군사 6백명을 거느리고 들어와 숙위하였다.<sup>99)</sup>
- ③ 명주장군 王順式이 來朝하였다.<sup>100)</sup>
- ④ 溟州大匡 王順式·大相 兢俊·王廉·王父·元甫 仁一 등이 馬軍二萬을 거느렸다.<sup>101)</sup>

96) 「위비」 142. “爰有當州慕法弟子 閔規關滄 欽風志切 慕道情深 早侍禪扉 頻申謹款 仍捨普賢山寺 請以住持 大師對曰 深感檀那 有緣則住”

97) 崔柄憲, 1986a. 「앞글」 (주 3) 201.

98)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5年條.

99) 『高麗史節要』, 卷1, 太祖 10年條.

100)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11年條.

101) 『高麗史』, 卷2, 世家2, 太祖 19年條.

- ⑤ ④王順式은 溟州人이다. 그 고을의 將軍으로 있었는데 오랫동안 굴복하지 않으므로 태조가 이를 근심하였다. 이때 侍郎 權說이 아뢰기를 “아버가 아들을 명령하고 형이 아우를 훈계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왕순식의 부친 許越이 지금 중이 되어 內院에 있는 바 그를 파견하여 타이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 태조가 그 말을 좇았다. 왕순식이 드디어 장자 守元을 보내어 항복하므로 태조는 王氏라는 성을 주고 이어 田宅을 주었다. ⑥ 왕순식은 또 아들 長命을 파견하여 병졸 6백명을 거느리고 宿衛하러 들어 왔다. ⑦ 그 후 그는 자제들과 더불어 그 부하들을 인솔하고 입조하였으므로 왕씨 성을 주고 大匡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장명에게는 廉이라는 이름을 주고 元甫로 임명하였고 小將 官景에게도 역시 왕씨로 사성하였으며 大丞으로 임명하였다. ⑧ 태조가 神劍을 토벌할 때 왕순식은 溟州로부터 자기 군대를 인솔하고 와서 합동하여 싸워 신검을 격파하였다.(後略)<sup>102)</sup>

먼저 사료 ⑤-④의 내용을 살펴보면 金順式이 귀부를 하지 않아 王建이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이때 侍郎 權說이 왕건에게 김순식을 포섭하기 위해 그의 부 許越을 파견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왕건은 弓裔를 축출하고 난 뒤, 豪族聯合을 의도하면서 궁예의 臣僚들이 귀순해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체로 왕건에게 來附하였다. 특히 918년(太祖 元年) 8월 직후 ‘分遣單使 重幣卑辭’의 방법을 취하여 그들을 歸附도록 한 것이다.<sup>103)</sup> 그러나 왕순식은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왕건에게 항복하지 않고 독립된 세력권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왕순식이 왕건의 집권을 반대하였고 나아가 궁예를 지지하였던 친궁예세력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사료 ①과 ⑤-④를 보면 태조 5년(922)에 王順式이 그의 장자 守元을 開城에 올려 보내 항복하므로 왕건은 王姓을 하사해 주고 田宅을 주는 등 특별대우를 해 준 것을 알 수가 있다. 왕성의 하사는 기록상 최초의 일로 擬制家族的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명주세력을 통제해보려는 방책이었다. 즉 혈족과 같은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명주세력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정책이었다. 그리고 왕건이 준 賜田은 왕순식가에 대한 경제적 보장의 의미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다음으로 사료 ②와 ⑤-⑥를 보면 태조 10년(927)에 왕순식이 그의 아들 長命을 파견하여 군사 600인을 거느리고 개경에 들어가 왕건의 숙위를 담당하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귀부에 필요한 형식적인 절차인 上京從士의 의미가 있는 상호 호혜적인 차원인 것이다.

그리고 위의 사료 ①②와 ⑤-④⑥는 金順式이 명주에 남아 그 지역을 독립적으로 통치하였던 것으로, 태조는 김순식의 아들을 중앙에 머물게 함으로써 그가 이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王順式은 태조 11년(928)에 와서야 그 무리를 이끌고 親朝하였다(③과 ⑤-⑦). 이에 태조는 김순식에게 왕씨 성을 내리면서 大匡으로 임명하였고, 그의 아들 장명에게는 廉이라는 이름을 주고 元甫로 임명하였다. 또 그의 小將 官景에게도 역시 왕씨로 사성하면서 大丞으로 임명하였다. 이제야 왕건과 순식의 연합이 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溟州의 大

102) 『高麗史』, 卷92, 列傳5, 「王順式」條.

103)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元年條.

豪族 金順式의 귀부는 太祖 王建의 대호족 포섭정책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이었다.<sup>104)</sup>

이때 王順式이 귀부하였던 이유는 지방에서의 獨立的 地位를 누리기보다는 이제는 명주에 대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高麗 中央에서 높은 지위를 얻어 태조의 신하로서 溟州地方을 대리통치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王순식은 官階를 받고 중앙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근거지인 명주지역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一利川 戰鬪에 참여하는데 명주에서 출발하였던 점으로 알 수 있다.

이때에 王건이 金順式에게 수여한 大匡은 제1의 官階로 太祖代에 지방세력 중에서는 王순식 혼자 뿐이었다.<sup>105)</sup>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당시 태조에게 있어 王順式의 위치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때 溟州出身으로 王순식의 小將인 官景(王景)도 王姓과 官階를 받았다. 뒤에 그의 딸은 王건과 결혼하여 제8비 貞穆夫人이 되고 順安王大妃를 낳았다.<sup>106)</sup> 정목부인의 딸이 순안왕대비인 점으로 보아 왕실내에서 왕자와 혼인하였을 것인데, 이는 그녀의 外祖父인 王景의 政治的 비중이 당시에 상당히 莫強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sup>107)</sup>

그리고 사료 ④와 ⑤-①를 보면 王순식이 태조 19년(936)에 후백제를 멸망시키는 一利川 전투에 王父·王廉·仁一·兢俊 등의 지휘관과 馬軍 2만을 이끌고 中軍에 참여하고 있다. 동원된 軍勢를 보면 그가 막강한 軍事的 基盤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王父와 王廉은 溟州出身이다.

王父는 본래 金周元의 후손으로 溟州에서 王順式의 부장으로 있었다. 태조 11년에 순식이 王건에게 귀부를 하자 그를 따라가 小將 官景과 같이 왕성을 하사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後百濟 토벌시에는 王順式과 함께 참여하였다. 뒤에 內史丞을 역임하였으며 그의 딸은 王건에게 시집을 가 大溟州院夫人이 되었다.<sup>108)</sup>

앞의 王景과 같이 王예의 딸도 王建의 비가 되어 명주지역출신이 2명이나 후비가 된 것이다. 이것은 태조가 溟州豪族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동시에 왕실의 세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結婚政策이었다. 즉 혼인을 통해서 溟州地域의 세력과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방법으로 취해진 것이다. 특히 오랫동안 태조에게 불복했던 명주지역 豪族勢力的 딸을 후비로 맞는다는 것은 태조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의의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명주 최고의 실력자였던 金순식에게서 豪族聯合形態의 納妃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은 아마도 그에게 남비할 딸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王예는 「朗圓大師碑」의 陰記에 ‘當州都令 佐丞王父’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都令

104) 朴漢高, 1993. 「고려의 건국과 호족」 『韓國史』 (국사편찬위원회) 12, 29.

105) 金甲童, 1988. 「高麗初期 官階의 成立과 그 意義」 『歷史學報』 (歷史學會) 117, 12-22.

106)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1, 「貞穆夫人」條.

107) 朴貞柱, 1992. 「앞글」 (주 1) 35-36.

108)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1, 「大溟州院夫人」條 및 卷109, 列傳22, 「趙廉 附 王伯」條.

은 都領과 같은 존재로 兩界지역에 배치된 州鎮軍의 지휘관에 대한 칭호였는데,<sup>109)</sup> 대체로 그 지역의 토착세력이었던 것이다.<sup>110)</sup> 명주의 都舍이었던 王父는 그 지역의 군사적 책임자였으며 지휘관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명주의 都舍職은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고려초의 전란기에 명주세력에 대한 우대조치로서 土着勢力이었던 王父에게 임시로 내려준 직책이다.<sup>111)</sup>

이제 開淸과 王順式的 관계와 아울러 新羅 國王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 ① 또 知當州軍州事인 太匡 王公荀息이 鳳毛로써 경사로운을 나타냈고 龍額으로 상서로운을 드러냈다. 진리의 도량을 찾아가 그 奇妙함을 탐구하였고 禪山에 들어가서는 神異함을 우러르니, 人中的 師子가 山陰에서 翫月하는 문을 두드렸고 天上의 騏驎이 剡縣의 놀이 낀 집에 몸을 던지는 것과 같았다.<sup>112)</sup>
- ② 本國의 景哀大王이 대사의 덕이 천하에 높고 이름이 海東에 두텁다는 것을 들었으나, 아직 宮中으로 避席의 예를 갖추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中使 崔暎을 보내어 詔書를 전달하고 養廬로 초빙해서 正道의 위태로움을 돕도록 청하면서 國師의 예를 표하였다.<sup>113)</sup>
- ③ 이 때에 太匡(王荀息)이 僚佐를 거느리고 바로 禪關에 나아가 함께 줄지어 치하하는 儀禮를 베풀고 모든 백성의 경사스러움을 다하였다. 하물며 隣近 州·郡·縣의 官冠에 있는 자들의 수레가 서로 바라보고 오고 감이 끊이지 않았다.<sup>114)</sup>
- ④ 이때 개청은 가끔 보현산사를 떠나 郡城에 이르러 州師(왕순식)가 勤王하는 것을 공경하고 또 邑人들이 奉佛함을 讚揚하였다.<sup>115)</sup>

개청이 주지하고 있었던 地藏禪院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민규의 喜捨로 이루어져 그의 관할 아래에 있었으나, ①과 같이 얼마 후에는 知溟州軍州事로 있던 王荀息(順式)과 관계를 맺게 되어 그 세력 기반을 넓혀 나갔다.

그런데 신라왕실은 地藏禪院의 개청과 연결을 의도하여 ②와 같이 신라 경애왕이 中使 崔暎을 보내 개청을 초빙하면서 國師의 예를 표하였다. 그래서 개청이 王京으로 떠나려 할 때 ③과 같이 왕순식은 僚佐를 거느리고 地藏禪院에 나가 儀禮를 베풀었다. 그러자 인근 州·郡·縣의 官冠에 있었던 자들이 줄지어 찾아오게 되었다. 이때 官冠에 있었던 자들은 신라의 관리라기보다는 이미 지방에서 독자세력을 형성한 자들이었을 것이다. 인근 주현의 관직자

109) 『高麗史』, 卷83, 志37, 兵3, 「州縣軍 東界」條.

110) 金南奎, 1989. 「明宗代 兩界 都領의 性格과 活動」 『高麗兩界地方史研究』 (서울:새문社) 110-116.

趙仁成, 1981. 「高麗兩界州鎮의 防戍軍과 州鎮軍」 『高麗光宗研究』 (서울:一潮閣) 132-133.

111) 金甲童, 1996. 「高麗時代의 都領」 『韓國中世史研究』 (韓國中世史研究會) 3, 70-71.

112) 崔彥僞 撰, 1976. 「앞비」 (주 37) 142. “亦有知當州軍州事 太匡 王公荀息 鳳毛廣慶 龍額呈祥 趨理窟以 採奇 諱禪山而仰異 人中師子 扣山陰翫月之門 天上騏驎 投剡縣栖霞之捨”

113) 「앞비」, 142-143. “本國景哀大王 聞大師德高天下 名重海東 恨闕迎門 遙申避席 仍遣中使崔暎 高飛鳳 詔 遠詣養廬 請扶正道之危 仍表國師之禮”

114) 「앞비」, 143. “此際太匡 齊携僚佐 直赴禪關 共陳列賀之儀 皆罄羣黎之慶 況復隣州 比縣典郡 居官冠蓋 相望 道途不絕”

115) 위와 같음. “大師此時 暫移慈蓋 來至郡城 尊州師勤王 讚邑人之奉佛”

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羅末麗初에 왕순식이 知溟州軍州事로써 강력한 호족세력의 기반을 가져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개칭은 ④와 같이 가끔 普賢山寺를 나와 왕순식이 거주하는 郡城에 이르러 金順式이 勤王하는 것을 공경하고 또 邑人들이 奉佛하는 것을 讚揚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勤王’이라는 표현에서 ‘王’은 궁예나 왕건을 가리키는 것 같지가 않다. 景哀王 때에는 이미 궁예 정권이 몰락하였던 시기였으며 왕건과의 관계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시기이므로 신라왕을 지칭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왕순식이 신라왕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 그가 신라에서 임명된 地方官 出身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왕순식은 知溟州軍州事라는 직함을 가지고 강릉지방을 대표하던 대호족으로서 당시 그곳의 敎團을 영도하던 도굴산과 낭원대사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sup>116)</sup> 즉 왕순식은 그의 호족적 기반과 굴산문이 표리가 되어 있었으므로 敎·俗 兩界에 걸쳐 명주일대를 장악하고 있었다.

위의 비문에서 왕순식이 갖고 있던 직함이 知溟州軍州事로 나타나 있다. 이 知州軍州事의 칭호는 知州諸軍事와 동일한 것이며 州治와 州軍을 장악하는 직책으로 명주도독과 동일선상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sup>117)</sup>

그런데 그의 知溟州軍州事 임명에 대해, 궁예가 명주를 점령하고 나서 왕순식에게 지주제 군사 칭호를 주었다는 것과<sup>118)</sup> 신라에서 명주의 왕순식에게 호족으로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던 상황을 인정하면서 知溟州軍州事란 관직을 내려주었다는 주장이 있다.<sup>119)</sup> 그러나 비문의 내용을 보면 그 연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889년의 梵日의 入寂과 景哀王(924~927) 때 국사의 예를 표하였던 것인데, 이 사이에 연대를 알 수 없는 왕순식의 직함인 知當州軍州事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 직함이 나타난 연도를 상한으로 889년, 하한으로 927년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당시에 해당되는 비문내용의 전개가 계속해서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나오므로 상한에 가까운 889년 또는 890년으로 상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궁예 점령(894) 이전에 신라에서 왕순식에게 지명주군주사라는 직함을 내려 준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州·郡·縣에 파견된 지방관이었다가 城主·將軍으로 변모하여, 나중에 지방에 토착해 호족화하는 경우가 있었다.<sup>120)</sup> 載岩城將軍 善弼은 본래 6두품으로 신라말에 眞安縣의

116) 李樹健, 1984. 「高麗前期 支配勢力과 土姓」 『앞책』 (주 56) 190.

117) 全基雄, 1987. 「羅末麗初의 地方社會와 知州諸軍事」 『慶南史學』 (慶南史學會) 4, 14-15.

『三國史記』 孝成王 2년, 景德王 2년, 哀莊王 6년, 憲德王 1년, 興德王 2년, 文聖王 3년, 景文王 5년, 憲康王 4년조에 의하면 이들 각 왕에게 당에서 왕으로 冊奉함에 ‘大都督 鷄林州諸軍事’로 되어 있어 도독은 주제군사와 동급으로 취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18) 全基雄, 1987. 「위글」 15.

119) 金甲童, 1990. 「앞글」 (주 9) 76.

120) 南在祐, 1987. 「羅末麗初 豪族의 經濟的 基盤」 『慶南史學』 (慶南史學會) 4, 45-47.

尹熙勉, 1982. 「新羅下代의 城主·將軍」 『韓國史研究』 (韓國史研究會) 39, 54-64.

李基白, 1974. 「新羅私兵考」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서울:一潮閣) 264.



縣令으로 파견된 지방관이었다가 성주·장군으로 변모한 예로, 이러한 변모의 계기는 農民蜂起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121)</sup> 그래서 왕순식도 신라에서 지방관인 知溟州軍州事로 파견되었다가 그후 草寇들의 침입이 있자 명주장군이라 일컬어졌을 것이다.<sup>122)</sup> 즉 지방관인 王順式이 재지세력이었던 王父와 연합하여 郡縣의 보호, 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민을 무장시켜 將軍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음으로는 개청과 궁예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명주지역에 구축된 궁예세력은 역시 골산문과 충분히 紐帶될 수 있었을 것이지만, 現傳하는 문헌에서 그러한 직접적인 자료를 찾기 힘들다.

궁예는 신라의 왕자출신으로 권력다툼에 의해 왕궁을 떠나게 된 것 같다.<sup>123)</sup> 그는 寧越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후 世達寺에 들어가 중이 되었다.<sup>124)</sup> 이곳에서 14여년간(877~891) 있으면서 영월지역은 물론이고 훗일 興靈寺 檀越들의 출생지인 忠州·原州·溟州·竹州·堤州 등지의 지방세력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sup>125)</sup>

그후 竹州의 箕蓋에게 의탁하였다가 眞聖王 6년(892)에 北原의 賊首인 梁吉에게 投身하여 東征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원주의 雉岳山 石南寺에 거주하면서<sup>126)</sup> 군사 600명으로 酒泉(지금의 寧越 醴泉)·奈城(寧越)·鬱烏(平昌)·御珍(旌善) 등을 항복시킨 후 眞聖王 8년(894)에 명주를 점령하였는데, 무리가 3500명으로 붙어났다.<sup>127)</sup> 이들을 250명씩 14隊로 나누고 金大黔·毛旰·長貴平·張一 등을 舍上으로 삼았는데, 이러한 군대가 바로 궁예의 세력 기반이 되었다. 궁예는 명주에 머무는 동안 자립해서 명주로부터 해안을 끼고 북상하여 영서로 넘어가 猪足(麟蹄)·狝川(華川)·夫若(金化)·金城·鐵圓 등의 城邑을 점령함으로써 그 세력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다. 그 후 왕을 칭하고 내외의 관직을 설치하였

121) 尹熙勉, 1982. 「위글」 61.

122) 王順式이 溟州將軍으로 불린 기록이 있다(주 98·99·100·102).

123) 『三國史記』, 卷50, 列傳10, 弓裔條.

124) 鄭永鎬는 세달사의 위치를 강원도 영월군 南面 興越里 興教洞 大華山 西復으로 보았다(1969. 「新羅獅子山 興靈寺址研究」 『白山學報』(白山學會) 7, 27).

125) 궁예의 세력배경에 대해 申虎澈은 궁예가 世達寺의 사원세력을 배경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았는데, 그 구체적인 예로써 영월·명주·청주·공주의 여러세력을 들었다(1982. 「앞글」(주 3) 36-40). 鄭清柱는 궁예의 세력으로 世達寺의 사원세력과 그 인근의 호족세력 특히 몰락한 진골세력을 들었다(1996. 「앞글」(주 3) 70-80). 그리고 李在範은 궁예가 隱院僧徒와 같은 사원 내의 下層勢力들과 결합한 것이라고 하였다(1992. 「앞글」(주 3) 23-26). 趙仁成은 궁예가 이미 세달사시절부터 자신의 세력을 모으려고 하였을 것이고, 추종자들을 갖고 있었을 것이나 그 세력은 소규모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1991. 「앞글」(주 3) 10-11).

126) 石南寺는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城南里 절골에 있었다(辛鍾遠, 1994. 「雉岳山 石南寺址의 推定과 現存民俗」 『정신문화연구』(정신문화연구원) 통권 54, 9-11).

127)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 卷11, 眞聖王 8年 冬10月條에 “弓裔自北原入何瑟羅 衆至六百餘人”이라 하였는데, 同書, 卷50, 列傳10, 弓裔條에는 “入溟州 有衆三千五百人”이라 하였다. 이 相異한 기록에 대해 朴漢高은 명주에 들어갈 때 600여명이었던 것이 명주에서 모집하여 3천 5백인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았다(1978. 「後三國의 成立」 『韓國史』(國史編纂委員會) 3, 622).

다. 말하자면 궁예가 泰封을 건국하면서 후삼국을 형성할 수 있었던 기반은 명주지역에서 구축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弓裔가 600명의 병력으로 溟州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는 사실이다. 당시 명주세력이 궁예에게 대항할 만큼의 병력을 갖추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궁예가 명주에 들어올 때는 600여명이었던 군사가 나갈 때 3500인으로 불어났다면 적어도 2900여명의 군사가 溟州勢力의 휘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弓裔가 명주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세력은 金周元系이고 그 세력 휘하에 金順式이 있었다는 견해가 있다.<sup>128)</sup> 만약 김주원계가 세력이 강하였다면 궁예가 이 지역을 김주원계에게 맡겼을 것이다. 그리고 김주원계가 세력이 강성해서 약화시킬 목적으로 金順式을 장군으로 삼아 명주를 통치시키려고 했다면 弓裔가 명주에 들어 올 때 金周元系가 반대했을 것이고, 점령 후에 궁예가 김순식에게 명주의 실권을 장악시키려는 과정에서 궁예의 군사력보다 거의 5배가 큰 김주원계가 군사행동을 했을 것이나 전혀 그런 기록이 없다. 그래서 궁예에게 점령된 후에 김순식이 溟州地域에서 최고의 統治權者가 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이미 김순식계의 세력이 가장 크게 성장하여 溟州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弓裔가 명주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궁예와 당시 명주지역의 최고지배자로 있었던 김순식의 관계가 매우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순식이 眞骨出身으로 地方官에 파견된 자이고 궁예는 왕자출신인데, 그들은 이전부터 절친한 관계 혹 姻戚關係일 수도 있다. 그래서 김순식이 왕자인 궁예를 모시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명주를 점령할 때 ‘入溟州’라고 표현한 것을 보아도 궁예는 명주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기 보다는 王順式 등 명주의 官民들로부터 환영을 받아 入城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弓裔가 명주에 오기 전에 王順式과 연관되어 있었고 또 명주가 궁예의 지배를 받았으므로 결국 開淸은 弓裔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開淸과 王建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① 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 먼저 언덕이 골짜기가 되듯 세상 일이 빨리 바뀔까 걱정했고,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나서 세월이 가 버릴 것을 문득 한탄했다. 바라는 바는 대사의 말씀을 기록하여 멀리 무궁토록 보여주고, 吾道의 宗旨를 유통시켜 영원히 전하러 함이다. 이로 말미암아 문도들이 表를 올려 여러차례 대궐을 두드리고, 여러 사람들이 간절하게 祖宗에 아뢰니 임금에게까지 이르렀다. ㉕ 今上(王建)의 성스러운 文章은 세상에서 빼어났고 신비스러운 武藝는 하늘로부터 타고났다. 이에 능히 三韓을 평정하고 하나로 더불어 통일을 이룩하였다. 이제는 金鏡을 높이 매달고 밝게 靑丘를 비추었다. 그리하여 백성을 賑恤하여 이미 중흥의 운세를 이루었으며 불교에 귀의하여 모두 外護의 은혜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시호를 내려 朗圓大師라 부르고 탐명을 悟眞이라 한다.<sup>129)</sup>

128) 全基雄, 1987. 「앞글」 (주 117) 15 ; 趙仁成, 1991. 「앞글」 (주 3) 34.

129) 崔彦擄 撰, 1976. 「앞비」 (주 37) 143-144. “切恐鯨池灰起 先憂陵谷之遷 鯨海塵飛 忽恨歲年之往 所冀

② 太祖가 王位에 오르자 이 절(三公寺)에 詔勅을 내려 寺名을 錄案에 기록하고 後嗣에게 전하게 하니 이상한 일이다. 무릇 神人이 占位하여 그 徵兆를 보이고 祖師가 터를 닦아 그 상서로움을 알았으며, 神聖王에 이르러 三土를 통일하였으니 그 效應함이 著名함으로, 이런 사실로 말미암아 寺名을 三和寺라 고쳤다.<sup>130)</sup>

위의 사료 ①②의 내용으로 보아 開淸과 王建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 확실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뒤에도 오랫동안 왕순식은 獨立勢力을 유지하고 있다가 928년에 降附한 후 왕건과 결합하였는데, 이때 개칭도 王建과 因緣을 맺었을 것이다. 그리고 왕건은 개칭을 통해 溟州地方의 人心收合을 위해 그를 내세웠을 것이다.<sup>131)</sup>

그러나 開淸의 비는 그가 죽은지 10년 뒤인 高麗 太祖 23년(940)에 세워졌다. 비가 이렇게 늦게 세워진 이유는 사료 ①-④에서와 같이 첫째로 후삼국의 전쟁 특히 후백제와의 전쟁이 치열하였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둘째로 中央官僚들이나 王建이 관심을 두지 않은 점이다. ‘문도들이 表를 올려 여러차례 대궐을 두드리고, 여러 사람들이 간절하게 祖宗에 아뢰니 임금에게까지 이르렀다.’는 표현으로 보아 門下의 제자들이 여러번 그리고 懇切하게 글을 조종에 올려 비를 세워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다가 940년에야 비가 건립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개칭이 원래 弓裔의 勢力圈에 있었고 왕건에게 王順式이 귀부한지 2년밖에 안되는 시기에 개칭이 사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陰記에 왕 및 왕실이나 中央官僚의 이름이 없는 대신 王順式의 부장이었던 王父의 이름과 그의 잘 알려지지 않은 地方勢力이 나타나 있다. 이것은 명목상 왕건에 의해 비가 설립된 것이지 실제로는 地方官吏들이 건립하고 중앙관리들이 불참한 것으로 中央權力과의 관계가 疎遠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료 ①-⑥의 내용을 보면 王建이 後三國을 통일한 위업을 극찬하였고 백성을 矜恤히 여기는 恤民意識을 가진 군주로 묘사되어 있어 다분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며 상투적인 말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 수 있다. 이 비문의 撰者인 崔彦擢은 고려에서 작성한 모든 비문에서 불법을 외호한 태조의 공덕을 찬양하는 한편, 태조를 이상적인 군주상으로 묘사하여 극찬하였다.<sup>132)</sup>

그리고 왕건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②의 내용을 살펴보면 三和寺는 梵日에 의해 개창된 것으로 본래 三公寺였는데 삼화사라 불리워진 것은 왕건의 後三國統一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①에서와 같이 여기에서도 왕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보이지 않고 추

記大師之言說 遠出無窮 流吾道之祖宗 傳於不朽 由是 門徒抗表 頻扣金門 衆懇聞天 達於玉宸 今上聖文 世出神武 天資三駟 而克定三韓 一舉而齊成一統 今則高懸金鏡 普照青丘 所以振恤黎民 已致中興運歸之依釋氏 皆披外護之恩 以此錫諡曰 朗圓大師 塔名悟眞之塔”

13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4, 「三陟都護府 佛宇」條. “太祖龍飛 爰勅慈寺 籍名錄案 俾傳后嗣異矣 夫神人占位示其兆 祖師構基 識其祥 及神聖王會和三土 其效應著明 用是更寺曰三和寺”

131) 金杜珍, 1981. 「王建의 僧侶結合과 그 意圖」, 『韓國學論叢』(國民大 韓國學研究所) 4, 149.

132) 李賢淑, 1995. 「앞글」(주 13) 29.

상적인 말로 만 이루어진 것이다. 또 ‘三土를 통일한 것’이므로 ‘三和’라는 표현을 쓴 것은 牽強附會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위의 緣起說話를 嶺山門 行寂系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133)</sup> 그러나 行寂이 주지로 있었던 太子寺는 영주에 있고 삼화사는 동해시 頭陀山에 있다. 지리적으로 볼 때 태자사에서 삼화사로 가려면 太白山脈을 넘어가야 하는데 반해 地藏禪院에서 출발했을 때는 해안도로를 타면 금방 도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설화는 거리상 가까운 開淸系와 연관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開淸은 명주지역의 최고 실력자인 金順式과 그의 부하인 王父·官景 및 6두품 출신인 閔規와 관계를 맺고 나아가 新羅王·弓裔·王建과도 관련을 갖고 있었다. 즉 開淸은 다양한 政治勢力과 連繫시켜 嶺山門을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다.

#### IV. 結 論

지금까지 羅末麗初의 閔嶺山門과 政治勢力의 動向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梵日은 慶州에서 파견된 溟州都督 金述元의 후손으로 溟州地域에서 세력을 갖고 있었으며, 그의 母는 世獻角干의 후손으로 명주에서 여러 세대 거주한 세력가였다. 그는 810년에 출생하여 15세에 출가하였고 836년에 入唐하여 濟安大師에게서 6년간 배웠으며 847년에 귀국하였다.

梵日은 851년에 경주에서 파견된 명주도독 金公의 초빙으로 굴산사에 주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김주원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金公의 宗教勢力과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梵日은 景文王·憲康王·定康王의 부름을 받았으나, 그가 변방에 거주하고 있어 왕의 통치력이 강력히 미치지 못했고 王者의 權威를 부정함과 동시에 地方豪族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開淸은 그의 父親代에 慶州에서 康郡으로 이주한 지방세력가였으며 835년에 출생하여 華嚴山寺로 출가하였다가 梵日의 제자가 되었다. 범일 입적 후 굴산사의 제2조가 되어 嶺山門을 지켰으나, 자주 草寇들의 침입을 받았다.

이때 開淸은 강릉으로 이주해 온 6두품 출신인 闕澗 閔規의 喜捨로 嶺山寺에서 普賢山寺로 옮겼다. 또 그는 신라에서 파견된 知溟州軍州事인 金順式을 후원세력으로 삼고 있었고 그의 부하로 溟州地方의 土着勢力이었던 王父와 官景과도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리고 궁예가 명주를 점령하기 이전부터 王順式과 교분이 있었으므로 開淸과도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한편 개척이 景哀王의 초빙에 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新羅王室과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궁예정권 몰락 후 오랫동안 독자세력을 유지해 온 왕순식이 왕

133) 金杜珍, 1986a. 「앞글」 (주 8) 330.

건에게 歸附를 해서 개칭이 그와 관련을 맺었지만 後百濟와의 전쟁과 王建의 무관심에 의해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에서 주장하여 온 대로 崛山門이 대부분 金周元系가 주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굴산문의 梵日·開淸은 물론 미약하나마 王父와 같은 김주원계와 관련이 있었겠으나, 이들은 각기 다른 政治勢力과 관계를 맺고 산문을 운영해 나갔다. 이로 보아 崛山門은 각자가 처해있는 政治狀況의 변화에 따라 이해관계를 달리하면서 유지시켜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